

30일 Market Index			
코스피	2535.29	코스닥	831.68
	(+15.48)		(+9.24)
금리	3.560	환율	1290.00
	(+0.006)		(+0.40)

m-커버스토리

출산율 최저인데 키즈산업은 날개

‘텐 포켓’ 트렌드

올해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면서 아이들 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키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912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3명(6.7%)이나 감소했다. 국내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022년 0.78명이었던 합계출산율도 올 2분기 0.7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적어도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출생아 수 1.9만명
1981년 이후 2만명 밑 처음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

키즈산업 40조원대 급성장
부모·이모 등 공동육아 트렌드
프리미엄 키즈제품 수요 늘어

이러한 가운데, 키즈산업은 성장중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키즈산업의 규모는 2002년 8조원, 2007년 19조원, 2012년 27조원, 2020년 40조원대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출산을 감소로 1자녀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양가 조부모, 이모, 삼촌 등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갑을 열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육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키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혈연을 넘어 부모의 지인까지 포함된 이른바 ‘텐 포켓(Ten pocket)’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베이비 푸드 시장에서는 해외직구가 특히 강세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입분유 거래액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분유를 구매하는 수요도 크게 상승해 각각 전년 대비 2021년



서울 중구 한 백화점에 고가 프리미엄 유아용품이 진열돼 있다. /뉴스시스

에 104%, 2022년에 26%, 2023년(1~9월)에 39% 늘었다. 이에 G마켓과 옥션은 수입분유 당일출고 서비스 ‘맘마배송’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 분유, 기저귀, 유아동복 등 유아용품 물가 상승세가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키즈 라인 럭셔리 패션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분유, 유아용 학습교재, 유아동복, 기저귀 등 영유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 및 서비스 중 6개 품목의 올해 10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인 3.7%를 넘었다. 특히 유아동복 물가는 작년 동기기간보다 12.1%, 기저귀 가격은 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 시장 규모는 2020년 9120억원에서 2022년 1조2016억원으로 약 32%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패션 시장이 13% 성장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아동 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도 모두 20%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업계는 프리미엄 유아동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키즈 브랜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저출산 현상에 따른 ‘적게 낳은 만큼 귀하게 키운다’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프리미엄 키즈 관련 제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美 금리인하 가능성… 금값 역대 최고가 눈앞

美연준 위원들 ‘비둘기파적’ 메시지
국제 금 선물값 온스당 2047.1달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 발언이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을 보태면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1월29일(현지시간) 온스당 2047.1달러를 기록해 6개월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지난 2020년 10월 기록한 역대 최고 가격인 온스당 2074.88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온스당 1937.70달러였던 뉴욕선물시장 금 가격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증가 기준 온스당 2047.1달러까지 오르며 거래일

평균 0.32%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빠르면 내년 초 기준금리가 하향될 수 있다는 기대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등 외신은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준 이사를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적(금리인하·유동성 증가를 통해 시중 통화량 증가를 꾀하는 정책 방향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 손꼽히는 매파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금리인상·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책 방향성) 위원이다. ‘매파적’

위원이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그 의의가 크다는 외신들의 설명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월러 이사는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며 “경기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하락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면 금리인하를 개시할 수 있다”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러 이사가 내놓은 의외의 비둘기파적 메시지에 금 가격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루에만 27.60달러 올라 1.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달러 당 1295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 대비 0.54%(7원) 내렸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기준금리 또 ‘동결’… 내년 성장률 2.1%로 낮춰

한은, 연 3.5% 7연속 유지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다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일곱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관련기사 3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높지만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한은은 늘 정책목표인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소비자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3.8% 수준으로 높아져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늘어나는 가계부채 추이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실 등 금융불안이 더 심화될 수 있어 동결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1.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8~9월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늦어

졌다”며 “최근 한달간 IT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예측한 대로 1.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에서 5월 2.3%, 8월 2.2%로 낮췄다. 올해 들어 총 0.3%p 낮춘 셈이다.

이 총재는 “수출·설비투자가 회복하며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이 약화돼 지난 전망치를 소폭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경로상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교체설 제기된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 뉴스시스
▲ 민주당 “자승 입적 애도…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 이어받아야”

▲ 결혼 증여세 3억 공제·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 이준석 “인요한, 셸럽 역할은 성공… 정치 변화는 실패”



▲ 방문규 “많은 표 차이 예측 못했다…오일머니 공세 높다 실감” /사진 뉴스시스
▲ 유인태 “병립형 회귀는 탐욕, 노무현 여러 번 졌다”… 이재명 직격

尹,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신설 협의·조정 강화로 정책추진 속도

대통령실, 3실·5수석 체제 개편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관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여당과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다.



이관섭 정책실장

신설된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도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정책실장 운영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

사회)’ 체제에서 3실·5수석 체제로 개편된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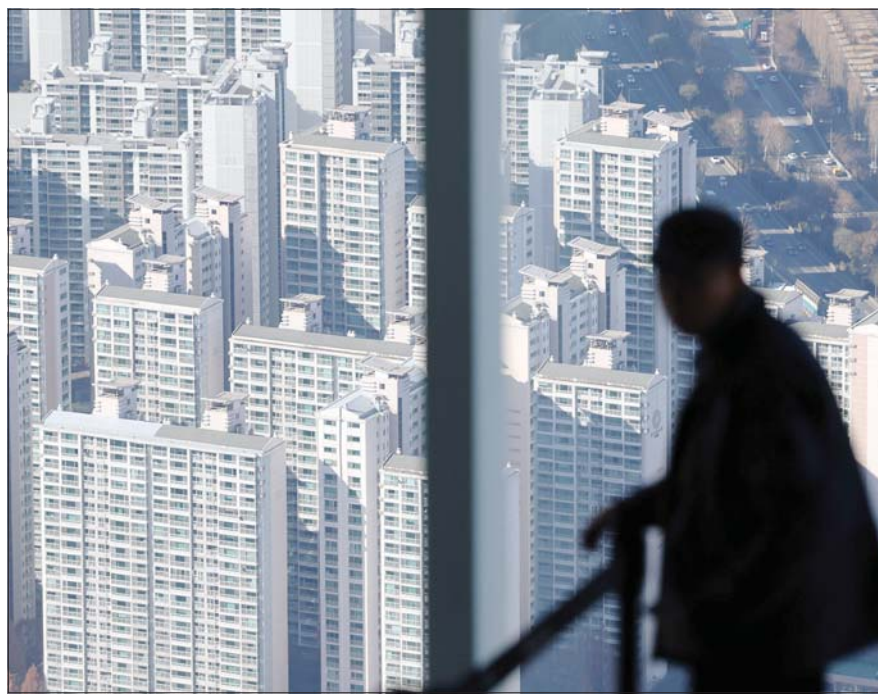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연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폐지됐다.

1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정책실장이 신설되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수석비서관급 인사 등 ‘대통령실 2기 체제’를 위한 인사개편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올 중부세 고지 인원·금액 급감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중부세 고지 인원과 금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 기준 중부세는 전년도 445만원에서 올해 59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뉴시스

기업 설비투자 전담팀 구성·밀착지원

산업부, 10대 제조업 투자 간담회
규제 완화·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누적 이행률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

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분기 누적 239억달러다. 이는 2020년 3분기 129억달러, 2021년 3분기 182억달러, 2022년 3분기 215억달러에 이어 증가 추세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회와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내에도 기업들의 지속적 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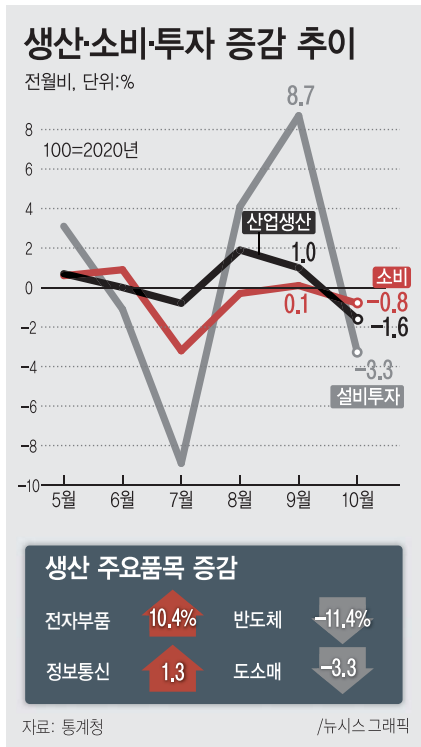
통계청, 생산 1.6%↓… 감소 전환
반도체 -11.4%, 기계장비 -8.3% 등
소비 0.8% 줄어… 비내구재 -3.1%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들었다. 특히 전(全)산업 생산은 4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1, 7, 10월)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8월(1.9%)과 9월(1.0%)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다 10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전산업 생산은 8, 9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10월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임시공휴일 등 조업일수가 줄면서 2020년 4월(-1.8%) 이후 감소폭이 42개월 만에 최대에 달했다.

산업생산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11.4%)가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과 9월(12.8%)에 두 자릿수로 증가를 나타내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반대 효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나머지 업종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라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다. 도소매가 -3.3%, 금융·보험이 -1.2% 등이다. 반면 정보통신(1.3%)과 예술·스포츠·여가(4.2%) 등의 부문에서 늘었다.

소비(소매판매)도 전월에 비해 0.8% 줄었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에 잠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의복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간 7만가구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국토부, 2세 이하 자녀가구 대상

정부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등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김대환 기자 kdh@

금 가격 온스당 최대 2300달러 갈수도

>> 1년 ‘美 금리인하 기대감’서 계속

3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내년 3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7.9%였으며, 6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3.1%에 달했다.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만큼, 달러 약세와 금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 가격이 역대 최고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최고 금 가격은 지난 2020년 10월 기록한 온스당 2074.88 달러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의 광채가 돌아오고 있다’며 금의 12개월 목표 가격을 온스당 2000달러에서 20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도 이달 초 금 가격이 내년 3분기 이전에 온스당 209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냈다. 이어 금 가격의 강세(Bull case)가 이어질 경우 최대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상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달러 약세 기대감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지연 등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의 미 국제 매도와 달러 매수 현상도 금 가격의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

이창용 총재, 긴축기조 재확인… “금리인하, 앞선 생각”

한은 기준금리 동결

2%대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강조
일각선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분석
“선부른 부양책, 부작용이 더 많아”

“통화 긴축 기조가 6개월 이상 될 것이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많이 든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긴축기조를 가져갈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동결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한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3.6%에서 내년 2.6%까지 떨어진 뒤 2025년이 돼야 2%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금리인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금리인하 가능성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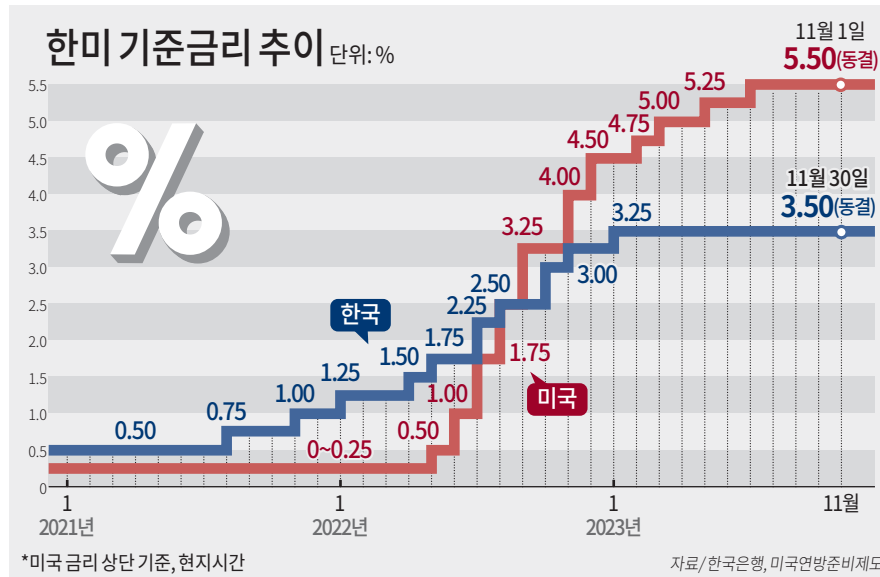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조만간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니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결제은행(BIS)회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통위에서도 감지됐다. 지난달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성장률 침체를 우려해 금리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철



회했다.

이 총재는 “당시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한 건 국제유가가 튀어올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악화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위험성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정세도 예단은 어렵지만 주변국이 전쟁을 확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도 많이 안정된 만큼 (금리인하 가능성을 야기한) 불확실성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금리인상 영향 받아”

이 총재는 이날 가계부채와 관련해 서서히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분기 105.8%에서 2분기 105.4%, 3분기 105.3%, 4분기 105%로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조정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있다”며 “기업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부채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한 두달 안에 판단하지 말고 이번정부 끝날 때 즈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총재, 타깃 재정정책 필요성 강조

이날 이 총재는 내년이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선부른 (경기)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으므로 타깃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내년에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단계에서는 부양책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2% 성장률이 낮은 수준이 아닌 만큼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자선냄비 준비하는 구세군

30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세군남동평강의마에서 구세군 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선냄비 0모금 활동을 앞두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반도체 시장, 13% 이상 성장 전망

증권가, 삼성 등 목표주가 상향 조정
업계 “‘슈퍼사이클’ 이어지진 않을 것”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과도한 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13.1% 성장할 전망이다.

메모리 시장 회복이 핵심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한자릿수인 다른 분야와는 달리, 메모리 만큼은 44.8%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높게 설정했다.

증권가에서도 4분기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 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모습, 유안타 증권은 메모리 사업 영업이익이 15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메모리 시장 회복세는 이미 가시화됐다. 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 등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 3분기부터는 반등을 본격화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수치로도 입증됐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한때 1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DDR4 8Gb 가격이 1달러 후반대로 올라섰다. 제조사에서도 공급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전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ICT 수출에서도 메모리 수출이 16개월만에 전년 동기보다 1% 늘어난 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을 크게 높이는 모습이 다. 업계에서 보는 DDR5 D램 비중은 30% 가량, 인텔 신규 서버용 CPU 출시와 서버 업계 AI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머지 않아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HBM 품귀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방 산업 수요도 회복하는 분위기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27개월만에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신흥국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중국 스마트폰 업계도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경쟁이 이어질 예정, AI와 VR 기기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회복세가 ‘슈퍼사이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무역 분쟁 등으로 수요 회복이 더딘 탓이다. HBM 효과도 전체 비중으로는 크지 않다. 낸드플래시 시장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정상화도 아직 멀었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회복세가 분명하지만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2025년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비트코인, 18개월만에 연고점 경신

지난달 29일 기준 3만8350弗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반영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8000달러 돌파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하락 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어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9일 3만83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올해 연고점을 경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8000달러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후 차익매물이 발생하면서 3만 77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숨고르기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3월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지만 현재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윌러 이사는 연준 내에서도 긴축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윌러 이사가 금리 인하에 힘을 쓰는 비둘기파(통화 양적완화 선호)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

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거부 이유로 시세조종을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핑이 증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하면서 승인거부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형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발행해도 비트코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바이낸스가 도와줘야 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4만 달러 돌파 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화폐 트레이더 마이클 반 포프는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저항선으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며 “3만8000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은 4만달러가 다음 (저항선)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SC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말까지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 202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전 반감기인 2020년 4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에서 연말 2만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440%가 상승한 바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유도이미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국내 최초 어린이식 전문 브랜드 '푸드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초록마을 MD들이 초록베베 상품을 소개하고있다. /초록마을

“마음 놓고 먹이세요”... 식품업계, 건강한 영유아식 꽃혔다

감소하는 출산율에도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식 시장 규모는 2015년 680억원에서 2020년 1671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33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리성을 선호하는 맛벌이 부부가 늘어난 데다, 건강한 것을 먹고 싶어하는 부모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하림은 최근 '어린이HMR(가정간편식)' 브랜드 '푸드버디'를 론칭하고 즉석밥 3종과 라면 4종, 국물요리·볶음밥·튀김요리 5종, 핫도그 5종 등 신제품 24종을 출시했다. 저출산 기조이지만, 영유아식 시장 등 어린이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든 것.

하림 측은 “어린이식과 유아식은 영양에만 초점을 맞춰 맛이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라고 설명했다.

당시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김홍국 회장 역시 “못 먹게 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제대로 먹이세요”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푸드버디 제품에는 합성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100% 국내산 유기농 쌀과 생채소, 한우, 생계육과 생돈육을 비롯해 고품 미역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했다.

전문 영양사를 통해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에 맞춘 영양학적 제품 설계도 강화했으며,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재료의 식감과 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반영했다.

출산율 저조해도 영유아식 시장 ↑ 2025년엔 3300억 규모 성장 전망
편리성·건강, 부모 욕구 반영 분석
영양·식감·크기 등 연구결과 반영

하림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식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발 등을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한편 어린이식 제품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은 영유아 식품 전용 브랜드 ‘초록베베’를 6월 론칭하고 70여종 제품을 냈다. 이달에는 볶음밥을 출시하며 HMR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초록베베 볶음밥은 한우·새우·닭안

심 등 3종으로 선보이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무항생제 한우, 무인산염 백새우, 무항생제 닭안심을 주재료로 국내산 유기농 쌀과 당근, 홍파프리카, 양파 등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채소 7가지를 사용했다.

볶음밥 1봉지의 나트륨 함량은 270mg, 새우볶음밥은 300mg으로 유아(3~5세)의 한 끼 나트륨 충분 섭취량(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인 약 330mg 대비 각각 82%, 91% 수준이다.

맛벌이 부부의 바쁜 육아 환경을 고려한 편리한 포장 방식까지 더했다. 끼니 때마다 남기지 않도록 아이 한 끼 식사에 적합한 180g씩 소포장하고, 손으로 뜯기 편해 빠른 식사 준비를 돕는 이 지켓 포장 방식을 적용했다.

이영훈 초록마을 가공식품기획 총괄은 “초록베베 론칭 초기에는 이유식 재료 중심으로 상품군을 빠르게 늘렸다면 지금은 초록마을의 경쟁력인 PB, 그 중 가공식에 집중해 기획·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바쁜 부모들을 위해 간편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조안심’ 식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초록마을은 초록베베 론칭 후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기준 영유아 상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의 숫자는 초록베베 론칭 전인 6월보다 30% 늘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상품 관련 월매출은 35% 증가했다.

베이비본죽의 운영사 순수본은 이유식을 강화하기 위해 월령을 세분화했고,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전략으로 바뀐 사업을 운영중이다.

영유아식 성장세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헬시플레이어 열풍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림 어린이 가정간편식 ‘푸드버디’ 초록마을 ‘초록베베’ 70여종 선포
베이비본죽 이유식 월령 ‘세분화’
매일유업 국내 최초 락토프리 적용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가 적은 어린이 전용 치킨이나 라면, 고혈압을 관리하느라 나트륨이 낮은 국물과 볶음밥, 유당불내증에도 먹을 수 있는 유제품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식을 일부러 챙겨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일유업의 유기농 우유 브랜드 ‘상하목장’은 대표적인 아이간식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른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어른간식으로도 입소문을 탔다.

상하목장은 락토프리 제품 중에서도 유기농 및 프리미엄 우유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해 ‘유기농 락토프리 우유’를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유기농 우유에 유당분해공법을 적용한 우유로 유기농 전용목장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으며, 매일유업의 락토프리(LF) 공법으로 유제품 섭취 시 배 아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유의 유당 성분을 제거했다.

전지분유가 함유된 아이 간식 오리온의 ‘베베’는 소비자 원인에 힘입어 2019년, ‘베베’라는 이름으로 단종된 지 7년 만에 재출시됐다. 베베는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입 안에서 사르르 퍼지는 달달한 분유 맛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좋아하는 추억의 과자다. 출시 당시부터 성인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베베는 해섭(HACCP) 인증을 받은 과자로 성인과 아이가 모두 부담 없이 먹기에 좋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양성분이 좋은 어린이식을 찾는 성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염·저당식을 원하는 성인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지만 맛은 없을 것이라는 편견도 깨부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상생협력활동을 대기업(모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9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21.(목)

▶ 신청대상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내용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상생협력활동 평가 수행

매칭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상생협력활동 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지원

※ 매칭분담비율: ▲사외·지역중소기업 70:30 ▲사내 협력업체 50:50

▶ 지원한도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활동과제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혜택 우수기업 선정시

①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②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③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 보조금) 우대 등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E-mail,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 강원,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동부 TEL: 02-6711-2965	인천광역본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중부, 고양파주 TEL: 032-510-0608
부산광역본부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TEL: 051-520-053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충남, 충북, 충북북부 TEL: 042-620-5615
광주광역본부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TEL: 062-949-8745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TEL: 031-259-7172
대구광역본부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TEL: 053-609-0524	※ 담당자, E-mail은 상기 연락처로 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Tel. 052-703-0631, 0633

※ 신청서 양식과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ergy**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 픽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에너지의 **그린픽처**

與 혁신위 “중진 총선 불출마·힘지출마, 6호 혁신안 의결”

인요한 “이달 4일까지 답 기다릴 것”
조기해산엔 “당 대응 보고 결정”
공관위원장 자리에 추천 요구
김기현 “적절하지 않아” 거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30일 앞서 권고했던 ‘당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총선 불출마 또는 힘지출마’ (희생)를 6호 혁신안건으로 정식 채택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달 4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11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다”며 “최고 위원회의에서 논의해줄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당초 권고안으로 내놔던 지도부·중진·친윤계의 희생을 공식 혁신안건으로 채택해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공식 안건 채택을 통해 당 지도부 및 당사자들의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풀이된다. 지난 3일 내놔던 희생 권고안은 최고위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0점이다. 70점, 80점짜리 혁신은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다.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고 사실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혁신위 안건 세부 내용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당에 책임있는 분들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며 “이런 국민의 뜻을 엄중히 생각하고 당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인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달 꾸려질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자신을 추천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해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오직 당과 나라를 위해 국민의 뜻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끝까지 집

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혁신위 활동에 늘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계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위에 전권을 주시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혁신위가 제안한 2~5호 안건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였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통해 보고받았지만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시기를 전후해 최종 의결하고, 공관위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혁신위 제안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인 위원장의 발언을 감안하면, 당의 조치가 미흡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 12명에게 혁신안 발표 직전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또 오 혁신위원은 이 같은 최후통첩

에 대해 “당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다. 최고위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설명했다.

6호 혁신안과 공관위원장직 추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면서도 “당의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혁신위 내 내용이 어느 정도 봉합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 요구에 관한 질의에 “그간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 총선 힘지출마로 ‘故 노무현의 길’ 택할까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대표 성공사례
지역주의 타파·희생정신으로
낙선에도 전국구 스타 정치인 돼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힘지출마 의사를 밝히는 후보가 하나 둘씩 나오면서, 직전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지출마로 희생하며 ‘노무현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자신이 닦아놓은 기반을 포기하고 힘지에 출마하며 정치적 입지를 몇 단계 이상 상승시킨다.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 출마하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이 지난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텃밭인 대구·경북에 출마하는 식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12개 지역구에서 11개가 미래통합당(국

민의힘 전신)으로, 1개 지역구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현 대구시장(당시 무소속 출마)이 가져갔고, 전라남도 10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싹쓸이 한 것처럼, 힘지출마는 후보가 스스로 사형장에 들어가는 꼴과 같다.

한국 정치사에서 힘지출마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사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9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로 삼아 끝내 낙선한다.

당선을 위한 득실관계 계산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과 정치인 스스로의 희생정신에 낙선했음에도 그는 전국구 스타 정치인이 됐고 그의 대선 승

리 원동력이 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결성되기도 했다.

군포에서 3선을 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 수성갑에 내려가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힘지출마의 좋은 사례다.

힘지출마는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선거 출마자 45세 이하 후보 총 28명 대부분을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힘지에 출마시켜 ‘큰대 정치’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힘지출마를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입지가 탄탄한 대표 정치인인 이 대표가 ‘희생 정신’을 보여줘야 당 내 갈등을 불식시키고 총선에서 민심의 바람을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인천 계양을에서 비교적 손쉽게 당선됐다. 이 대표가 도전할 만한 지역구로 거론되는 곳은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성남에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분당갑이나 출생지인 경북 안동·예천이 꼽힌다.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3선을 한 서울 중구·성동갑을 포기하고 수도권 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경북에 도전해 총선을 지휘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비이재명계는 ‘사법리스크’로 주3회 재판을 받으면서 당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느냐며 이 대표의 힘지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엑스포 부산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 총력

김기현, 빠른 시일 내 부산 방문

국민의힘이 30일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후폭풍 차단에 힘을 쏟았다. 빠른 시일 내 김기현 대표가 부산을 방문키로 했으며,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스윙 스테이트’(경합지역)로 떠오른 부산의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부산지역 국회의원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 대표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함께했다.

이들은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역내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느꼈을 수 있는 상실감을 가장 걱정했고,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최

대한 지원하기로 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문제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도 당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엑스포 관련 현안도 일정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김 대표가 직접 부산에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점검해주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030 엑스포 유치에 비록 실패했지만,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원팀의 하모니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며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게실 부산시민들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이끌어어나갈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부산 발전을 위한 3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했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항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는 물론이고, 2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와 3단계 친수공간 및 신도심 개발 계획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다짐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민주당 설득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승의원(부산부산진을)은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북항 등 현안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부산을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CHEF'S SPECIAL

명작반미

대한민국 조리명장이 만든 '명작' 반미



크랩&쉬림프 7,600
Crab & Shrimp



바질쉬림프 7,400
Basil Shrimp



14대 대한민국 조리명장

남대현 名匠

백내장 보험손해율 개선…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 만지작

심사 강화로 손해율 크게 줄어
보험업계 10% 안팎 인하 조율

직전3년 갱신보험료 계산으로
고객 인하 체감은 어려울 듯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개선돼 1세대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유토이미지

1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10년 만에 내려갈 전망이다. 백내장 수술 심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개선된 영향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계산을 두드리고 있다. 인하 폭은 10% 안팎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된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20.5%(약 820만명)가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자기부담금이 없어 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었지만 많은 가입자들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올해는 약 6% 상승했다.

보험사들이 이례적으로 10년 만에 1세대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준비하는 것은 백내장 보험금이 꼽힌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해 손해율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보험에서만 지급돼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가입자들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로 평균 최대 8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

보험 손해율이 매우 높아졌던 원인은 백내장 보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로 입원·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만들어졌다. 판례 등의 영향으로 실손보험료 누수의 원인이던 백내장 보험금 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지급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개선되고 있다. 2021년 142.4%, 지난해 말 124.9%로 좋아졌다. 업계는 손해율이 올해 더 감소해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6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줄었다”며 “백내장 실손보험이 1세대는 완전히 포함되고 2세대는 일부가 포함되므로 1세대에서 손해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에 들어가는 보험금 규모와 손해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1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때문에 손해율이 낮아졌으니 분명히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0% 안팎의 숫자가 업계에서 이야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1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의 인하만으로 소비자들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료 갱신은 3년마다 돌아온다. 만약 내년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이 있다면 보험료는 직전 3년을 따져서 올라간다. 따라서 고객들은 올 한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져도 직전 2년치가 있으니 내년에 보험료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은 직전 3년의 갱신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며 “올해 1세대 고객의 손해율이 낮아진 것은 맞으나 작년과 재작년은 이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손해율이 낮아진 것만으로 내년 무조건 실손보험료가 낮아진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상자산 교란행위 꿈작마… 금감원, 전담조직 신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 신설
사업자 검사·불공정거래 단속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가상자산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가상자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통해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직이다.

금감원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해 디지털자산연구팀을 통해 가상자산 입법지원과 연구,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역할만 해왔다.

관련 입법의 부재로 가상자산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았지만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안을 총괄할 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신설된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규제체계 정착 ▲불공정 거래 단속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각각 전담하는 조직 체계를 갖추면서 금감원이 자본시장 등 다른 업권과 동일

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가상자산감독국장과 가상자산조사국장에는 이현덕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과 문정호 회계감리1국 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첫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 만큼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중용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다수의 검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세

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산 상황부터 이용자 코인 보관·관리, 영업방법, 거래질서 유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 퓨리에버(PURE)코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전담조직이 신설된 만큼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과의 공조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NH농협은행 농식품기업여신 잔액 30조 달성 기념행사

NH농협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농식품기업여신 잔액 3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농식품금융 선도는행으로 ESG기업을 우대하는 ‘NH농식품그린성장론’,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NH스마트팜론’ 등 농업·농식품기업 맞춤형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농식품산업 민간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수 농식품기업 우대상품인 ‘NH농식품기업우대론’을 출시하며 농식품기업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착공·분양·준공 실적 회복세… 악성 미분양은 늘어

10월 주택통계, 미분양 2.5% 감소
준공후 미분양 1만가구… 7.5% ↑
착공실적 1.5만가구… 31.4%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2.5% 줄었다.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은 1만 224가구로 증가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착공·분양(승인)·준공(입주) 실적은 회복세가 뚜렷해졌다.

30일 국토교통부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5만 9806가구) 대비 2.5%(1507가구) 감소한 5만 8299가구다. 수도권은 7327가구로 전월(7672가구) 대비 4.5%(345가구), 지방은 5만 972가구로 전월(5만 2134가구) 대비 2.2%(1162가구)

줄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은 7786가구로 전월(8201가구) 대비 5.1%, 85㎡ 이하는 5만 513가구로 전월(5만 1605가구) 대비 2.1% 줄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만 224가구로 전월(9513가구) 대비 7.5%(711가구) 증가했다. 다만 이는 10년 평균(1만 4342가구, 2013년 1월~2022년 12월)의 71.3%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월 착공실적은 전국 1만 5733가구로 전월(1만 1970가구) 대비 3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착공은 6191가구로 전월 대비 63.9%, 지방은 9542가구로 전월 대비 16.5% 늘었다.

유형별로 아파트 착공은 1만 2947가구로 전월 대비 43.3% 증가했지만 비

(非)아파트는 2786가구로 전월 대비 5.1%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3만 3407가구로 전월(1만 4261가구) 대비 134.3% 증가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은 전월 대비 109.4%, 임대주택은 전월 대비 166.0%, 조합원분은 전월 대비 239.9% 늘었다.

준공실적은 준공은 1만 9543가구로 전월(1만 2358가구) 대비 58.1% 뛰었다. 수도권 준공은 1만 5377가구로 전월 대비 190.9% 늘었고, 지방은 4166가구로 전월 대비 41.1%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준공은 1만 6729가구로 전월 대비 98.3% 증가했으나, 비(非)아파트는 2814가구로 전월 대비 28.2% 감소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카드 News

우리카드

고객자산가 맞춤형 투체어스 카드 출시

우리카드가 고소득자를 정조준한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했다.

◆ 연회비 250만원…최고등급 혜택

우리카드는 고객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카드인 ‘투체어스(TWO CHAIRS)’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실적 조건 및 한도 제한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2%를 적립한다. 연간 1억원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회비 250만원 상당의 ▲포인트 ▲백화점상품권 ▲호텔의식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카드 플레이트는 추가비용 없이 본인 및 가족카드 모두 메탈소재로 제공한다.

전 세계 럭셔리 공항 라운지를 동반 3인까지 매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국내 특급호텔 레스토랑 및 베이커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이닝 프리 빌리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항 라운지 ▲국내 특급호텔 ▲공항 등에서 발레파킹은 횟수 제한 없이 무료다.



비씨카드, 전국 11개 스키장서 최대 60% 할인 혜택 제공 이미지. /비씨카드

비씨카드

전국 11개 스키장서 최대 60% 할인혜택

비씨카드가 겨울을 맞아 스키장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리프트·렌탈·강습료 실적 조건 없이 할인

비씨카드는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해 2월까지 전국 스키장 ▲리프트 ▲대여서비스 ▲강습료 등을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할인 적용 스키장은 곤지암 리조트, 무주 덕유산 리조트 등을 포함해 11 곳이다.

기간 내 ‘리프트권 1+1’ 행사도 진행한다. 엘리시안 강촌에서는 8시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리조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식사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일 비씨카드 상무는 “엔데믹 후 첫 겨울을 맞아 스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KT, 김영섭 대표체제 첫 조직개편·임원인사

AI 기술조직 대폭 확장… 오승필·이현석 등 내외부 인사 탕평

‘고객·역량·실질·화합’ 제시
승진 축소… 기술혁신부문 신설
김 대표 “ICT 전문기업 도약”

KT가 30일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의 첫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이상 줄이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조직을 대폭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조직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부문을 통합한 ‘기술혁신부문’ 신설했다.

김 대표는 “IC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고객’, ‘역량’, ‘실질’, ‘화합’이라는 네가지 핵심가치를 체질화시켜 고객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 20% 축소… 기능 중심 조직 개편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역량, 실질, 화합 등 4개 핵심 가치를 내세웠다.



광화문 KT 사옥. (원형사진) 김영섭 대표

고객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언이다. KT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무, 윤리(감사), 경영지원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다. 또 그룹사의 경영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부문을 해체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본사 스태프 조직인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등을 CEO 직속으로 편제하고 경영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

특히 고객 지향적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축소한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

◆외부 인사 영입 “사업경쟁력-경영관리 고도화”

이번 인사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도 이목을 이끈다. 업계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경쟁력과 경영관리를 고도화 한다.

기술혁신부문장(CTO·최고기술책임자) 직급을 신설하고 외부 인사인 오승필 부사장을 영입했다. 오 부사장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카드/커머셜을 거친 IT전문가다. KT 내 IT·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장에는 정우진 전무를 영입했다. 정 전무는 삼성SD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을 거친 디지털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전문가다. KT 내 클라우드, AI, IT 분야의 기술 컨설팅 조직을 이끈다.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 및 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보

유한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다. 임 부사장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KT의 경영지원 고도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인사, 주요 보직에 보임

내부 인사도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기존 스태프 조직을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직무대리였던 이현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 B2C 마케팅총괄 역할을 맡는다. 엔터프라이즈부분장에는 네트워크 전문가인 대구·경북광역본부장 안창용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한다.

스태프 조직은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KT가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성화용 미래위원회 위원장(티캐스트 대표이사,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해 주원 흥국증권 대표이사, 임형준 흥국화재 대표이사, 임규준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정철현 대한화섬 대표이사, 유태호 티시스 대표이사, 손석근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문윤석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태광그룹 “‘2050 넷제로’ 달성할 것”

ESG 경영 5개년 계획

친환경제품 개발, 에너지 효율화 집중

태광그룹이 ESG 경영 실천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태광그룹은 29일 ‘ESG 경영 5개년 계획 및 경영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미래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다. 그룹 차원 ESG 경영 5개년 계획안과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하며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성화용 미래위 위원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이사과 ESG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태광그룹은 5개년 계획을 통해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이사회 중심 경영 등 3가지 핵심 전략방향을 밝혔다.

제조 부문에서는 친환경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고,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ESG·녹색금융 투자 및 친환경 포트폴리오 정책 확대와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그린오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미디어·인프라 등 기타 부문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한다.

/김재용 기자

르노코리아-티맵, 미래 인포테인먼트 협력

차기 모델에 티맵 인포테인먼트 도입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차기 모델에 티맵 인포테인먼트를 도입한다.

르노코리아는 29일 티맵모빌리티와 미래 인포테인먼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인 MOU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로드맵을 공유하고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르노코리아는 우선 내년 출시를 예정한 신차 ‘오로라’에 티맵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와 서드파티 앱 및 신규 콘텐츠도 개발한다.

/김재용 기자

현대모비스, 차량용 ‘QL 디스플레이’ 개발

대화면·고화질·슬림화 특징
글로벌 신규 수주 확보 계획

현대모비스가 저렴하면서도 선명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QL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QL 디스플레이는 대화면과 고화질, 슬림화를 특징으로한 제품으로, OLED 수준 품질을 내면서도 비교적 저렴해 차세대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QL 디스플레이는 색 재현율을 높이는 퀀텀닷 기술에 백라이트를 세분화해 화면 영역별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명암비를 극대화하는 로컬 디밍 기술을 융합했다. TV 시장에서는 ‘미니LED’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됐지만, 자동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QL 디스플레이

차용 디스플레이에서는 QL 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QL 디스플레이는 대형 곡선형 화면에 얇은 두께도 장점이다. 27인치 대화면 커브드에 14.5mm로 자동차에 더 손쉽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수 있다. 요구에 따라 두께를 10mm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QL 디스플레이 신규 수주에 나선 계획이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를 직접 방문해 제품 경쟁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공개한 롤러를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

코닝, 반 홀 사장 임명

반 홀 수석부사장(사진)이 코닝 한국지 역을 이끌게 됐다.

코닝은 한국지역 총괄사장겸 코닝정밀 소재대표이사사장에 반 홀 수석부사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반 홀 신임 사장은 “올해 한국 진출 50년을 기념한 코닝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벤더블 기기, 반도체, 자동차,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요일 무관 9시~22시까지 접수

LG전자가 전기차 충전을 365일 관리하며 고객 만족을 더 높이기로 했다.

LG전자는 12월 11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종전까지 평일 주간에만 자사 충전기 사용 중 문의와 불편 사항을 접수받았다. 앞으로는 요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접수하고 현장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LG전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

자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충전기뿐 아니라 LG클로이 운영 사업장이나 소비자들도 원격 서비스와 현장출동 등 상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LG전자 서흥규 EV충전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는 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와 충전경험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넷플릭스·유튜브서 게임을?... 플랫폼, 인앱으로 수익 다각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가능성 확보
넷플릭스 GTA 더 트릴로지 서비스
유튜브 플레이어블 현재 한시적 진행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미니 게임 등을 직접 플랫폼에 이식하며 수익 다각화를 실험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이른바 ‘메가 IP’로 불리는 인기 게임들까지 포섭해 인앱 게임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넷플릭스는 29일(현지시간) 락스타 게임즈의 ‘그랜드 테프트 오토: 더 트릴로지 - 더 디피니티브 에디션’을 12월 1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 구독자는 추가적인 결제나 앱 다운로드 없이 넷플릭스 앱이나 애플 앱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독립형 앱으로 GTA 더 트릴로지를 플레이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미 모뉴먼트 밸리, 옥센프리, 헤즈 업!, 레고 레거시: 히어로즈 언박싱, 컨트리 프렌즈, 컷더 로프 등 유명 타이틀을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부 국



넷플릭스는 이달 세가의 경영 시뮬레이션 ‘풋볼 매니저(FM)’ 시리즈에 이어 락스타게임즈의 히트작 ‘GTA’까지 인앱 게임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

가의 프리미엄 구독자를 대상으로 앱 내 무료 게임서비스 ‘플레이어블’을 출시한 사실이 전해졌다.

플레이어블은 유튜브 앱(APP) 내에서 별도 설치 없이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 등 37개 게임을 제공한다. 게임을 제공받는 프리미엄 이용자는 유튜브 홈피드에서 다른 콘텐츠와 함께 플레이어블 섹션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게임은 추가될 예정이지만 현재 실험적으로 선

보이는 만큼 내년 3월 28일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유튜브와 같이 앱 내에 게임을 이식한 사례는 많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는 앱 내에서 ▲고고매치(GoGo Match) ▲머지보스(Merge Boss) ▲리얼농장(Real Farm) 등 미니 게임을 마련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쇼핑 쿠폰 등으로 환원한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따르면 진출 국가 200개

국 중 한국 이용자들의 인앱 게임 참여도가 가장 높고 평균 체류 시간은 일평균 20분에 달한다. 인앱 게임에 소극적인 국가 또한 당연히 존재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최근 게임 스튜디오 누버스를 축소하며 수백명의 게임 개발 인력을 해고했으나 틱톡 내에 미니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대변인은 “정기적으로 사업들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성장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조정을 한다”면서 “최근 검토를 통해 게임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기존 더우인(Douyin) 내 게임이나 틱톡 내 게임은 이번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체가 잇따라 미니게임을 인앱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수익원 다각화와 이용자 록인(Lock-in)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스타티스타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 전세계 게임 수익은 약 5330억 달러에 달하게 될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이미 2세대 게이머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1개 가구당 2명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클라우드워즈의 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77%, Z세대 소비

자의 81%가 게임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주당 6시간 50분, Z세대는 주당 평균 7시간 20분을 게임을 하는 데에 쓰고 있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각각 60%, 42%만이 게임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게임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넷플릭스를 포함해 틱톡 등은 모두 정식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스트리밍 원격 플레이하는 것으로, 현재 플랫폼들이 추가 설치 없이 인앱 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향후 게임 이용자 수가 더 늘 경우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실히 되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 주체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시도 중인 만큼 향후 클라우드 게이밍 허브가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은 넷플릭스 정도기 때문에 기업 개별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신산업 우수 초격차 스타트업 10개社 선정

초격차 스타트업 테크 컨퍼런스 개최
대기업·공공기관·VC 등 기술 세미나
신산업 기술 동향 등 전략 주제로 진행

신산업 분야의 우수 초격차 스타트업에 티움바이오, 그리너지, 마키나락스 등 10곳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전문가, 대기업, 공공기관, VC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진행하는 ‘초격차 스타트업(DIPS 1000+) 테크 컨퍼런스’를 30일 개막,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닥터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뉴스시스

해엔 이를 통해 295개사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 있다.

이들간 행사에선 우수 신산업 스타트업 포상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

산업 기술 동향과 초격차 스타트업의 진출 전략 등을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 패널이 참여해 토론하는 7개 신산업 분야 기술 세미나도 진행했다.

첫 순서로 열린 로봇 분야 세미나에는 위싱턴 포스트지에서 ‘로봇의 마법사’라고 지칭하고, 인기 TV 방송 ‘유퀴즈’에 출연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버트 커니즘 연구소장인 데니스홍 교수가 ‘더 가까워진 미래: 초격차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 및 스타트업 대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분야 반도체공학회장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부원장, 바이오헬스 분야 싱가포르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 AI분야마이크로소프트 이진복 이사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도 나와 초격

차 스타트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초격차 스타트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기술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대행사도 이틀 동안 펼쳐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실장은 “신산업 스타트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신산업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창업대국을 이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강화, 개방형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한킴벌리

생리대 첫 의약외품 GMP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최초로 의약외품 GMP를 획득했다.

30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여성용품 제조사업장으론 처음으로 의약외품 GMP를 획득한 충주공장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구현해 품질과 공정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충주공장은 좋은 느낌과 화이트 패드, 팬티라이너, 입는 오버나이트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의약외품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다. 품질 신뢰성과 우수성이 모두 입증된 대한민국 소재 제조업체에 한해 부여되는 만큼 전 제조 과정에 대한 적합성, 품질관리, 모니터링, 현장 심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LX판토스

ESG 이니셔티브 UNGC 가입

LX판토스가 ESG 이니셔티브(국제협약)인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30일 LX판토스에 따르면 UNGC는 전세계 167개국, 2만3000여 회원사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UNGC 회원사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그 이행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LX판토스는 UNGC의 기본 원칙을 지지하고 이에 따른 환경책임 및 기업윤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B, 방통위 방송평가 3년 연속 1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캐거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 분야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이 출범한 후 2019년 3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는 등 합병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방송평가에서 SK브로드밴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가장

높은 393점을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 장애인 시청자 지원 프로그램 편성, 직접제작·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항목은 만점을 받았다.

운영 분야인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분야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합병 후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 트렌드, 공감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기간 및 비용을 확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SK C&C, 제조 현장 문제 실시간 해결

원격 제조 영상 협업 서비스 개발

SK C&C가 싱가포르의 협업 솔루션 전문기업 소프트파운드리와 ‘디지털 팩토리 플랫폼 아이팩츠(I-FACTS) 기반 원격 제조 영상 협업 서비스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9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소프트파운드리사는 타이완, 중국, 베트남 등에 해외 지사를 두고 디지털 팩토리 분야 협업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

반의 고화질 영상 협업 솔루션 ‘페이스프로(FacePro)’는 포르쉐, 타타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제조·생산 시설 관리 시, 기술·운영·비용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통 해외 공장에서 공정 과정의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파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등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전액장학생 60% · 17개 특성화 학과

장학금도 특성화 교육도
원하면 원디대

원광디지털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1차 모집 2023. 12. 01 (금) ~ 2024. 01. 12 (금)
2차 모집 2024. 01. 24 (수) ~ 2024. 02. 16 (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2년 연속 수상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 수혜율 100%

* 2024학년도 입학생 전원 배움장학금 지급

재학생 60% 전액장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공매도 금지에도 시황 부진… 외국인 이탈 가속화 우려

“금지직후 변동성 크다 안정 찾아
본질적인 펀더멘탈로 돌아간 것”

“지난달 외국인 일평균 거래액
6조1620억으로 31.5% 감소”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행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순매수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평균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발견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행됐던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2년에는 16조원,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19조5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황은 부진한 모습”이라며 “다만 투자자에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후 2조8000



/유투이미지

억원 증가했으며,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증가한 48조원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실시되기 직전이었던 3일 기준으로는 44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9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6.3%, 5.1%씩 상승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큰 모습

을 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시행되기 전 국내 증시는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금리·고물가 우려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월 15일 이후 2600선으로 진입한 적이 없으며,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8.9%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 9월 11일 이후 900선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날부터 이달 3일까지는 14.3%가 떨어졌다.

다만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반영됐다면 이번에는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한 효과가 있었지만 그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

국의 통화 정책 등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은 10월 3조6570억원을 순매도하고, 11월 들어 29일까지 3조782억원을 순매수해 투심이 반전됐다. 하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약9조49억원에서 11월 29일까지는 약6조1620억원으로 31.5% 가량 감소했다.

앞서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이철현 하나증권 연구원도 “시장이 이러한 정책(공매도 전면 중단 등)에 휘둘리는 모습은 증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왼쪽)과 한동엽 소셜인베스팅랩 대표가 토근증권 사업 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소셜인베스팅랩 토근증권 사업 업무협약

하이투자증권은 SNS기반 주식매매 플랫폼 운영사인 소셜인베스팅랩과 토근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하이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한동엽 소셜인베스팅랩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과 소셜인베스팅랩의 이번 업무협약은 토근증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근증권 관련 사업모델의 발굴과 조각투자업체 제휴 확대, 토근증권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셜인베스팅랩은 국내 최초 SNS 기반 주식매매 플랫폼인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기존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SNS를 결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과 주식거래는 물론 다양한 투자자들과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하은 기자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 ‘뚝’

이달 코스피 상단 2600선 예상
“코스피,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달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타렐리(연말 주가 상승)’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증시 상승을 견인할 호재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10.62% 상승했다. 이는 월별 기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부터 코스피 지수는 2490~252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코스피가 전 거래일(2519.81)보다 7.70포인트(0.31%) 하락한 2512.11에 개장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은 “11월 코스피는 월간 수익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의 금리 하락과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변화 덕이 컸다”면서 “올라간 속도가 급했던 만큼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12월 코스피 상단을 2600선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 2300~2600, 키움증권 2420~2620, 신한투자증권 2400~2550, 현대차증권 2330~2600 등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그동안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만큼 산타렐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데이터 의존적인 기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면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내년 연간 4~5회 금리 인하가 함께 나오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은 이런 Fed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산타렐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금처럼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적정 수준에 이미 도달한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반등 신호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연말 상승장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11월 S&P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치와 예상치보다 낮은 49.4를 기록했다. 경기 판단 기준인 50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월 발표가 예정된 ISM 제조업 PMI도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12월 상승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투자대상과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wkh@

내년 2월 ‘짐펜트라’ 美 출시… 셀트리온, 실적성장 기대

FDA 판매허가 후 4개월 만에 론칭

통합 셀트리온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 ‘짐펜트라’가 내년 2월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 출시된다. 셀트리온 그룹이 꾸준히 진행해 온 완전 직판 체제로의 전환이 큰 시너지를 내면서 내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SC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 SC 미국 제품명)가 미국에서 내년 2월 29일(현지시간) 출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미국 식품의약

국(FDA)으로부터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지 4개월 만의 빠른 론칭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짐펜트라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대다수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게 짐펜트라의 임상 자료 제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선호의약품 등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특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부 PBM의 경우 짐펜트라 출시 시점을 전후로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직판 체계도

강화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내년 1월까지 짐펜트라의 판매를 담당할 세일즈 전문 인력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홍보 및 마케팅 전담 인력은 3배 이상 확충 더욱 공격적인 커머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짐펜트라는 통합 셀트리온의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인 만큼, 짐펜트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직판 체계가 렘시마SC 판매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정재원 연구원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렘시마SC의 미국 출시가 2024년 예정돼 있다는 점은 시너지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유럽에서 쌓인 실제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년 매출액 전망치는 2조8048억원으로 올해보다 2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전일보다 0.56% 오른 7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증권-소시에테제네랄 아리랑본드 발행 성공

KB증권은 지난 29일 프랑스 기반 글로벌 은행 그룹 소시에테 제네랄이 7년 만에 한국시장을 찾아 발행하는 선순위 아리랑본드를 단독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시장 상황을 포착하는 발행사의 노련한 조달 경험과 국내는 물론 국제 채권발행시장(DCM)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KB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9일 아리랑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아리랑본드란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이다. KB증권과 소시에테 제네랄은 한국, 미국 및 유럽시장의 금리와 환율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리한 타이밍을 포착,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한 아리랑본드 발행을 선택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270억원 규모의 선순위 아리랑본드는 10년 만기에 발행 후 7년 후부터 매년 쿨(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무이표 단기 채권으로 이자가 단리로 누적되며 만기일 혹은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채권의 수익률은 연 5.40%이며, 사모형태로 발행된다. /신하은 기자



와인픽스
분당정자점
GRAND OPEN
2023.11.17

OPEN EVENT
11.17 - 12.07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0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분당정자점에 초대합니다.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winepick_s

WINE PICKS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 최초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 2027년 3.7兆 거래목표

농식품부, 공식 출범식 개최

상품거래 후 산지서 구매처 직배송
물류 최적화로 유통비 절감 기대
생산자·구매자 선택권 늘어나

온라인상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세계 최초로 열렸다. 유통단계별 비용을 줄여 농민 소득 증대와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한 국정과제이다. 올해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개장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거래목표 5000억원에서 본궤도에 오르는 2027년에는 3조7000억원의 거래목표를 갖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시장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줄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농식품부는 온라인시장의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과일잇 사업 기간 (10월16일~11월 10일)중 111건의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공식 출범식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과 참석내빈들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초기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cm)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자율조정부터 분쟁조정위 중재까지 3단계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이날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였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구매자는 요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대표인 더본코리아였다. 더본코리아가 발주한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한다.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을 절감해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metroseoul.co.kr

권익위 “육아휴직 장려금 환수, 위법·부당”

지자체 중복지급 환수 규정에도
명백한 근거 없는 불이익 처분 안 돼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조례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B 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는데,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

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해당 지자체 장려금 89만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B 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 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정심판에 해당 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은 B 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종사자 수 최다 업종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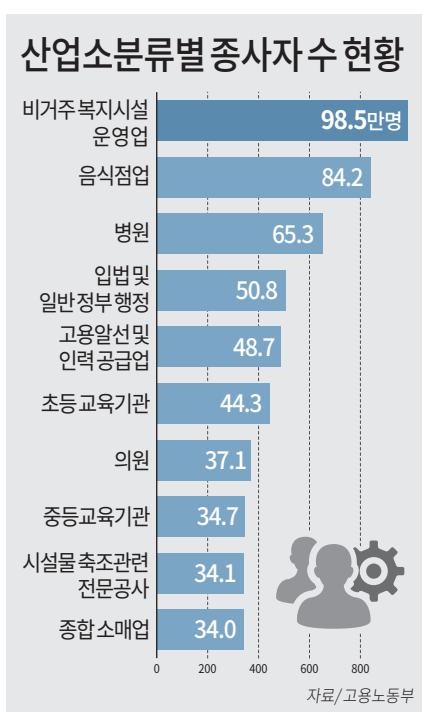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발표

음식점업, 전년비 증가폭 가장 커
220개 산업 소분류별로 세분화

올해 4월 기준 ‘세부화된 산업별’ 종사자 수 최다 업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8만5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업(84만2000명)과 병원(65만3000명)이 각각 2, 3위였다. 또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50만8000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48만7000명), 초등교육기관(44만300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폭이 큰 산업은 음식점업(+5만6000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만9000명) 순이었다. 감소폭이 큰 산업은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1만6000명), 그 외 기타개인서비스업(-1만3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대·중분류별 업종을 좀더 구체화한 소분류별 종사자 수 발표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20개 산업소분류별로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 작성은 이번이 처음이



다. 그간 산업 대·중분류에만 중점을 둔 반면 소분류는 1년 이상 경과된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한 바 있다.

종전의 소분류는 시의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표본수가 가장 많은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연2회)를 활용해 최신의 산업소분류별 종사자 수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개선사항으로, 활용가능한 산업분류 공표수준이 기존 중분류 71개에서 소분류 220개로 늘었다. 산업소분류 공표 시의성과 관련, 이번 발표가 원래대로라면 2021년 12월을 기준 삼았겠지만 개선돼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세부 산업별 동향과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주 호황인 조선업 종사자 수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중분류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소분류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업황이 개선 중인 여행업 종사자 수도 확인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개편이 지난 수년간 추정방법 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편 정책관은 “이번 공표가 각 산업의 세부영역별로 상세한 종사자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車·ICT 등 이업종 간 협업 추진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를 연결하는 개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 국제표준화 대응과 상용화 추진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 합동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 SK윌더스, KT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등 이(異)업종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작년 11월 전장부품시스템분과·융합보안분과·서비스플랫폼분과·모빌리티분과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출범해, 그간 자동차를 넘어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참여기관도 88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



/유토이미지

한 협업과제를 논의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며,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ITS MOBILITY는 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ETSI)와 협력해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Car2Car 컨소시엄 주관사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와 함께 표준화활동, 시범테스트,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문제는 창의력이야!



Hervé Tullet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2023.11.03 ~ 2024.03.0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주관
ARTCENTER IDA

창의예술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LÜK 루크박스

협력

창의예술

my art

씨씨씨씨

홍보 마케팅

(주)사아컴퍼니

‘정규교원 부족’에 중학교 기간제교사 70%가 담임 떠맡아

서울 기간제 교사 58.7%가 담임 중학교에서 배정 비율 ‘최다’ 감독업무 관련 조치 권고에 그쳐 채용 축소, 업무부담으로 돌아와

서울 관내 중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규 교사 수가 부족한 근본적인 학교 현장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간제 교사 중 생활지도부장,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총 9799명 중 58.7%에 해당하는 5755명이 담임교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의 담임배정 비율은 중학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중 담임·생활지도부장 맡고 있는 비율〉

학년도	급별	기간제(a)	담임(b)	생활지도부장(c)	비율	
					담임 (b·a)	생활지도부장 (c·a)
2023	초등학교	619	283	0	45.7%	0.0%
	중학교	3607	2534	51	70.3%	1.4%
	고등학교	5573	2938	7	52.7%	0.1%
합계		9799	5755	58	58.7%	0.6%

/정경희 의원실

교에서 가장 컸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3607명 중 70.3%에 해당하는 2534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았고,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5573명 중 2938명 (52.7%)이,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619명 중 283명(45.7%)이 올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으로 넓혀 기간제 교원의 담임 현황을 살펴봐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

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 58%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60.2%로 반등했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5년 38.5%에서 2023년 58.7%로 8년 사이 20.2%p 급증했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학생 인권부, 학생지도부 등으로 불리는 학생 사안을 다루는 생활지도부의 부장 맡은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기간제 교사 51명 (1.4%), 7명(0.1%)이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담임도 정규 교사에게 우선 맡기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하거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권고’에 그치며 기간제 교사들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

선과 함께 교사 수당 인상을 통해 교직 사회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교에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교사 채용 축소가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6669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격자수는 3565명으로 10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 업무나 학생 사안을 다루는 학생부 업무 등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정규교사가 부족하고 입시 경쟁, 교육 사업 수주 경쟁, 학부모 소통 등 업무 폭탄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정규 교사가 부족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공군, AI·UAM 미래기술 개발 ‘맞손’ 인하대, 미래 첨단산업인재육성 가속

AI허브에 공군신기술융합센터 설치 국방혁신 4.0 적극 이행 기반 마련 민간기업, 방산분야 진출 환경 조성

서울시가 공군과 함께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기술분야 협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30일 공군과 ‘AI 신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공군은 ‘지속 가능한 AI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국방혁신 4.0에 기반한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

뤄낸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서울 AI 허브에 ‘(가칭)공군 신기술융합센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공군은 신기술융합센터를 구축해 민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방혁신 4.0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돕는 기술 협력 등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는 민과 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와 공군은 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K-방산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AI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해 민간 스타트업의 AI 전문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공군의 관

련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 돕고, 전역 후 재취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와 공군은 세미나와 공모전 등 AI 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과 서울시의 협력은 혁신적인 민간군 협업모델로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방혁신 4.0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역량과 공군의 최첨단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시민 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대학 선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미래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학습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일학습병행 사업을 운영 중인 대학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자동차 등 9개 분야 41개 종목 NCS 기반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 개발 종목의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4년도 3월부터 3년 동안 연간 7억 원씩 최대 21억 원을 지원받아 미래 첨단 분야 인재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지난 2020년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반



인하대 본관.

/인하대

도체시스템공학과를 만들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우수 기업과 협력해 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IPP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올해의 서울색’ 선정… 랜드마크·굿즈에 활용

2024 서울색 ‘스카이 코랄’

서울시는 매년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하고,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굿즈(기획상품)에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가 공개한 ‘2024 서울색’은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추출한 ‘스카이 코랄’이다. 시가 지난 9월 28일~10월 5일 시민 1014명과 색채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와 ‘2024년 서울에서 가장 자주 가고 싶은 장소’ 모두 한강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시민이 한강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후 5~7시였으며, 특히 6~9월 기온이 높은 여름철 해질녘에 볼 수 있는 ‘핑크빛 노을’ 감상량이 급증한 데서 착안해 첫 번째 올해의 서울색으로 스카이크로랄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024 서울색(스카이크로랄) 조명을 켜 남산타워.

/서울시

시민들은 11월 30일 일몰 후부터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스카이크로랄로 변한 서울빛 조명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도심 겨울 축제 ‘서울윈터 2023’ 개막 전날인 이달 14일

까지 매일 저녁 밤 8~10시 정각에 30초씩 ‘2024 서울색’을 표출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스카이크로랄 조명을 행주대교 등 한강 27개 교량,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24서울색은 기업 협업 제품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염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LG화학은 하지훈 작가와 함께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 소반을 선보인다. 화장품 브랜드 투힐미는 스카이크로랄 립스틱을 출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다채로우 단 하나의 색으로 표현할 수 없어 해마다 변화하는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를 담은 ‘서울색’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밝고 매력적인 색상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매력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 $\mu\text{g}/\text{m}^3$ 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수송분야에서는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 실내온도 18도 이하 유지·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생활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GSK·안센 등 빅파마와 맞손… 삼바, 올 누적수주 3조 돌파

증액위탁생산 등 최근 5건 계약
“최대 생산능력 바탕 신뢰 쌓아”
신흥국 인도와 CDMO 경쟁구도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1건의 신규 위탁생산 계약과 4건의 증액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명과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은 지난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022년 기록한 계약 금액 1조 7835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총 5건의 계약으로 늘어난 수주 금액은 총 7608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시된 위탁생산 계약 11건 중 증액 계약은 총 7건으로 8805억원 수준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객사로 ▲GSK ▲안센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을 공개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은 올해도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28일 기준 ▲GSK ▲일라이릴리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12건의 증액 계약은 1조 1581억원인 것으로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0년부터 빅파마 고객사를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 빠른 생산 속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수요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은 60만 4000리터다. 지난 2020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을 착공해 올해 6월 전체 가동에 돌입했다.

오는 2025년 4월에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이 완공된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만 4000

리터가 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는 인도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CDMO 부문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다국적제약사 오로빈도의 자회사 큐라테크는 최근 미국 머크와 위탁개발생산을 위한 제한적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계약은 오는 2024년 3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번 의향서 체결로 오로빈도와 큐라테크의 동물세포 배양을 통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인도의 아라젠도 지난 2022년 11월 인도 벵갈루루에 3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단일항체치료제 위탁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오콘의 자회사 신젠은 올해 7월 인도 벵갈루루에 있는 스텔리스 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86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 백신 제조시설을 항체치료제 위탁생산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
인기웹툰과 협업 홍보전

LG생활건강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닥터벨머가 인기 웹툰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닥터벨머가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드밴스드 핑크 립세린’은 비타민 B12, 비타민 B5, 비타민 E 성분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는 입술 관리 제품이다.

무엇보다 LG생활건강은 30일 오후 제품 출시와 함께 웹툰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과 협업한 굿즈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선보인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톡에서 연재 중이다. 누적 조회수 4130만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청하 기자

오설록

홈카페 소비자들 공략
얼그레이·블랙티 출시

오설록이 연말을 맞아 홈카페를 즐기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시그니처 얼그레이’와 ‘스윗 허니 블랙티’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그니처 얼그레이’는 홍차에 천연 베르가못 향과 제주 유자를 더한 제품이다. 오설록에 따르면 일상에서 즐기기에 적합하고, 맛이 강한 음식이나 달콤한 디저트에도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스윗 허니 블랙티’는 꿀의 풍미가 가득한 홍차다. 설탕 대신 국내산 꿀과 스테비아를 활용했다. 이를 따뜻한 우유에 우려내거나 차가운 우유로도 밀크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설록이 선보이는 ‘제주 말차 슈틀렌’은 오설록 말차에 마카다미아, 호두, 크랜베리, 오렌지필, 건포도 등의 원료를 곁들인 디저트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호주 편의점 ‘이지마트’서
비비고 등 ‘K-푸드’ 판매

CJ제일제당이 해외 메인스트림 채널에 잇따라 진출하며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호주 대형 편의점 체인인 ‘이지마트(EzyMart)’에서 비비고, 햇반 등 K-푸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점한 제품은 비비고 떡볶이, 김스낵, 햇반, 햇반 컵반 등 14종으로, 이달부터 직영점을 시작으로 호주 전역의 이지마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로를 넓히며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K-푸드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모다모다의 시니어 모델들이 ‘다시 찾은 에너지’를 주제로 화보를 촬영했다.

/모다모다

‘A세대’ 중장년층 정조준 유통가, 마케팅상품 봇물

호텔업계, 가족·친구 등 교류상품
방탈출·산행&스파 패키지 등 선행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한달살기 등
여행업계, 패키지 상품 개발 활발

최근 유통 업계는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힐링 등 다양한 분야를 활용해 A세대 소비자에게 주력하고 있다.

A세대에 해당하는 연령은 만45~64세이며 경제적으로 구매력이 있고 시간적 여유도 갖춰 자기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호텔업계는 가족 및 친구들을 포함한 전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분주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은 ‘사라진 시계’라는 방탈출 상품을 판매한다. 체크인 시 방탈출 게임에 대해 안내하고 미션 카드 등 게임 도구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주 코오롱호텔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타임 애프터 타임’ 미디어 아트 전시 입장권 2매도 증정한다.

같은 기간 부산 코오롱 씨클라우드 호텔은 ‘편 앤 플레이’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호텔 프런트에서 할리갈리, 우노 등의 보드 게임을 대여해 객실에서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위(WE)호텔 제주는 한라산 산행 후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행&스파’ 패키지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영실 탐방로 입구까지 운영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비롯해 생수 2병과 머핀 또는 브라우니, 꿀, 초콜릿 등을 제공한다. 나아가 카본 스파 테라피와 천연화산암반수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A세대들의 여가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여행 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은 중장년층 특화 패키지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한 달 살기와 예술, 스포츠, 미식, 와인, 공연 등을 다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리얼트립은 ‘토끼와 두꺼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토끼와 두꺼비’는 디지털화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개인 비서 서비스 ‘뽀빠’를 운영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윤종규·이상명·조성환·홍연진 상무 발탁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 임원인사
나이·연차 상관없이 성과주의 승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를 발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이와 연차에 상관없이 성과를 창출하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4명의 상무 승진이 이뤄졌다. 승진자 가운데 윤종규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기획그룹장, 글로벌운영팀장, 제조기획팀장을 차례로 지내며 효율적인 생산 물량 관리를 통해 최대 매출 달성을 주도해 왔다.

윤종규 상무와 같은 1977년생인 이상명 상무는 사업 운영과 기획을 담당하며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였다. 그는 바이오에피스 PM그룹과 기획그룹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조성환 상무는 지난 2016년부터 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승진자〉



윤종규



이상명



조성환



홍연진

이오로직스에서 공무지원파트, 총무팀장(겸 ESG그룹장), General Affairs팀장 등을 두루 거치며 대외협력 및 인프라 부문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일하게 80년대생인 홍연진 상무는 전사 품질 역량 강화 및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여성 임원으로 이름이 올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직 개편 및 보직인사 발표도 앞두고 있다.

/이청하 기자

고유상·백상현·양철보 부사장 승진

삼성바이오에피스, 2024 임원인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부사장 3명, 상무 1명 등 총 4명의 승진을 골자로 한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유상 부사장과 백상현 부사장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서 각각 전략팀장과 Q&E팀장을 지냈다. 양철보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이상민 상무는 1975년생으로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MS1그룹장으로 근무했다.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직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격투 게임 최강자가 가린다… ‘스트리트 파이터’ 金 김관우 주목

광주 e스포츠 시리즈 아시아
오늘부터 이틀간 대회 진행
‘철권7’ 韓 vs 日 국가대항전
김관우·초청 선수들 팬미팅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김관우 선수의 열기가 이번에는 광주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우 선수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에서 격투게임을 대표하는 유명 선수들이 광주에 모여 한판 불을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올해 마지막 이스포츠대회인 ‘광주 e스포츠 시리즈 아시아(GES ASIA)’를 12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인기 격투게임을 주제로 하는 파이터즈 워크 형태로 치러진다.

우선, 첫날인 1일은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으로 진행한다. 다음날은 ‘철권7’이다.

‘스트리트파이터6’ 종목에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김관우 선수를 비롯해 동메달리스트인 대만의 린 리웨이, 일본의 카나모리 츠네히로, 홍콩의 예만호 등이 출전한다.

특히 김 선수는 40대 최고참 선수로



지난9월 29일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스트리트파이터V’ 종목으로 금메달을 딴 김관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 첫 e스포츠 금메달을 안기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철권7’ 종목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4대 4 국가대항전으로 치른다.

대한민국은 임수훈(울산)·김재현(체리베리망고)·전상현(전명), 오대일(머일) 선수들이 출전해 다양한 캐릭터와 화려한 기술로 일본 선수(아베 아키히로·타케유타·야마구치 신야·우에다 다 이키가)들과 승부를 가른다.

대회에 앞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대회도 함께 열린다. 종목별 상금은 1위 150만원, 2위 80만원, 3~4위 35만원이다.

또 현장에서 김관우 선수를 비롯한 초청 선수들의 팬미팅을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이스포츠대회에 항저우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금메달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인기있는 대회를 유치해 이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우 선수는 지난 9월 28일 중국 항저우 e스포츠센터 주경기장에서 열린 스트리트파이터5 결승전에서 폴세트(4대3) 점전 끝에 대만의 상위권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e스포츠 종목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라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LoL(리그오브레전드)에만 집중돼 있던 e스포츠의 열기가 김관우 선수의 우승으로 격투게임에 쏠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관우 선수는 1020세대가 대부분인 e스포츠 선수단에서 최고령이다. 그는 30년 넘게 격투게임만 온전히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그를 ‘고인물(게임계은어)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김관우 선수도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오래살고 불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e스포츠협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 데에 따른 값진 보상”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3종’ 통합 이벤트

3종 게임서 배지 찾는 미션 전개형

위메이드플레이는 인기 모바일게임 3종의 통합 이벤트 ‘애니팡 탐험대: 배지를 찾아서(이하 애니팡 탐험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애니팡 탐험대’는 ‘애니팡2’, ‘애니팡 사천성’, ‘애니팡 터치’ 등 3종의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자신이 플레이하던 게임으로 경품 응모와 순위 점수를 매기는 배지를 찾는 미션 전개형 이벤트다. 3종 게임 중 단일 게임 또는 2개 이상의 게임으로 참여해 배지를 합산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각 게임 내 게시판 통해 게임별, 통합 톱30 현황이 실시간 중계되는 이색 재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통합 이벤트의 주인공인 ‘애니팡2’, ‘애니팡 사천성’, ‘애니팡 터치’는 국내 대표 장수 모바일게임으로 성별, 연



위메이드플레이의 3종 게임으로 진행되는 통합 이벤트 ‘애니팡 탐험대’. /위메이드플레이

령, 선호 장르 등이 각기 다른 이용자들이 즐기는 대중적 모바일게임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는 10년차 반열에 오른 ‘애니팡 사천성’의 여성 이용자, 9주년을 맞이하며 3매치 퍼즐의 정석이 된 ‘애니팡2’의 중장년층, ‘애니팡 매치’의 손맛을 즐기는 20대와 30대 등 캐주얼 게임 팬들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게임즈, 장애인식 개선 등 앞장

‘장애인먼저실천상’ 우수상 수상

카카오게임즈가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에서 우수실천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내달 3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시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사회통합교육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주어진다. 카카오게임즈는 국내 최초로 3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게임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전

개, 장애인의 실질적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2019년부터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게임문화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게임 연계 기부 캠페인 및 임직원 참여 기부 프로그램으로 모은 성금을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등에 기부하고,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링키지랩’ 발달장애 직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및 실질적 지원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 개막

중국 청두서 12일 간 대회 진행
상금 18.4억 지난해비 10만 弗 ↑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중국 청두에서 전세계 최고 권위의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 대회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의 개막식과 개막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12일 간 진행된다.

CFS 2023 그랜드 파이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4년만에 크로스파이어 e스포츠의 인기가 가장 높은 중국 청두에서 유관중으로 역대 가장 긴 총 12일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상금은 지난해보다 10만달러 상승한 142만달러(약 18억4000만원)이다.

중국, EU-MENA,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총 4개 권역에서 선발된 12팀은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그룹 스테이지를 진행한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3위를 차지한 팀



스마일게이트, CFS 2023 그랜드 파이널 중국 청두서 본격 개막. /스마일게이트

들 간의 와일드카드전은 4일 진행된다. 그룹스테이지 1, 2위를 기록한 6팀과 와일드카드전을 통해 선발된 2팀으로 구성된 총 8팀은 12월 5, 6일 양일 간 진행되는 녹아웃스테이지 경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달 8일에 시작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4개의 티켓을 걸고 싸운다.

개막전은 A조의 전년 준우승팀 중국의 청두 올게이머스와 4년 만에 국제 대회에 복귀하는 터키의 LCK팀이 맞붙는

다. 이 외 A 조에는 브라질의 전통 강호 임페리얼과, 역시 4년 만에 CFS에 등장하는 북미의 쿤가르나가 배정돼, 치열한 3위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조에는 XROCK e스포츠(중국), 빈시트 게이밍(브라질), 랭킹이스포츠(베트남), 아누비스 게이밍(이집트) 등이 포진해 있다. 지난 해 CFS 2022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아누비스 게이밍 외 최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거나 신생팀들로 구성돼 결과가 예측이 어려운 조다.

C조는 지난해 챔피언 중국의 바이사 게이밍과 3BL 이스포츠(이집트), 퍼시픽막타(필리핀), 카라하우스.2L(베트남)이 편성된 1강 3약의 구조다. 절대강자 바이사 게이밍의 상대로 2021년부터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카라하우스.2L, 성장 중인 퍼시픽막타, 이집트를 대표하는 3BL 이스포츠의 분투가 관전포인트다.

/최빛나 기자

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레이어블은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유튜브가 설치된 모바일 기기와 데스크톱에서 즐길 수 있다. 현재 ‘앵그리 버드’를 비롯한 37개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은 더 추가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 37종 게임 가능한 플레이어블 출시

프리미엄 구독자 대상

유튜브가 인앱 게임 서비스인 ‘플레이어블’을 출시했다. 플레이어블에서는 ‘앵그리버드’를 포함한 37개의 게임

을 이용할 수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일부 국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를 대상으로 앱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게임 서비스 플레이어블을 출시했다고 공지



쿠키런: 킹덤, 구글플레이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 2관왕 등극. /데브시스터즈

다양화 추세에 맞게 모바일뿐 아니라 구글플레이 게임즈 등을 통해 PC에서도 최적의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빛낸 PC 게임’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쿠키런: 킹덤’이 최초 수상작의 영예를 안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최빛나 기자

www.dongsung-pharm.com


동성제약

생활속 해충 박멸과 빈대포비아까지

원샷, 원킬!

4주 연속
살충효과



빈대?
**비오킬로
한방에!**

구석 구석, 우리 집 속 보이지 않는 곳 해충까지 잡아주는 살충제 - 비오킬

비오킬은 선진국형 살충제로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과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적이며, 분사 후에도 약 4주 동안 살충효과가 지속됩니다. 비오킬의 주성분인 페메트린은 포유류 동물에게는 독성이 적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에 싹~

빈대, 바퀴벌레, 파리, 모기, 벼룩, 진드기, 쥐미, 좀벌레, 개미의 구제

물
99%

프레온
가스 NO

한화오션,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 ‘오르카’ 도전

현지서 ‘한화오션 데이’ 행사
“잠수함 수출 시장 적극 공략”

한화오션이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30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ORKA) 사업’ 참여를 위한 ‘한화오션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S-III for Poland’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현지 기자들은 장보고-III 잠수함의 우수성과 한화오션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폴란드와의 산업 협력 및 장기 비전에 주목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발표를 통해 잠수



한화오션은 지난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ORKA) 사업’ 참여를 위한 ‘한화오션 데이(Hanwha Ocean Day)’ 행사를 개최했다.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차별화된 억제력을 갖춘 장보고-III 잠수함이 폴란드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임을 내세웠다.

특히 장보고-III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 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

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유지보수 역량 향상을 위한 유지보수지원시스템(TOMS)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부사장은 “뛰어난 성능의 장보고-III 잠수함을 바탕으로 폴란드 해군이 원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번 폴란드 오르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진출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르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해군에서 운용할 잠수함 2~3척을 새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우리는행, 혁신 산업생태계 금융 지원

우리는행은 지난 29일 우리는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혁신산업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조병규 우리는행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한국타이어-KB손보, 신사업 발굴 맞손

한국타이어는 KB손해보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박종호 한국타이어 한국사업본부장(왼쪽) 박영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벤츠 사회공헌위, 산불피해 복구 지원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 벤츠 사회공헌위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강원지사원봉사센터에 4억원을 기증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 2번째)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오비맥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오비맥주가 동절기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강남구 일원에 코파크에서 29일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맨 앞 오른쪽)과 오비맥주 임직원 40여명이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비맥주



효성, 르완다 청소년 학업 지원

효성이 르완다 여자 청소년 학업을 지원한다. 효성은 르완다 조마 초중등학교에 ‘소녀 공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소녀 공간은 위생용품과 진통제, 휴식 공간을 갖춘 생리 위생관리 시설로 의료 소외지역 여학생들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

현대차그룹, ‘아이오닉5N·EV9’ 탑기어 어워즈 선정

아이오닉 5N ‘올해의 차’
EV9 ‘올해의 패밀리카’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가 영국탑기어에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2023 탑기어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N과 기아 EV9으로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아이오닉 5N은 최고상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폴 호텔에 내연기관 주행 감성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인정받으며, 전기차 시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모델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현대차 아이오닉 5N

아이오닉5N은 현대차가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전동화 모델에 집약한 모델이다. 고출력은 물론 N 전용 e슈프트와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 등 기술을 적용해 내연기관 감



기아 EV9

성까지 극대화했다.

기아 EV9도 ‘올해의 패밀리카’로 뽑혔다. 탑기어 올리 큐 불편집장에 긴 주행거리와 수납 공간, 편안한 시트와 고급스러운 친환경 소재로 호평

받았다.

기아 EV9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전동화 대형 SUV로, 넓은 실내 공간에 99.8kWh 대용량 배터리로 50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11월 유럽에 판매를 시작하며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2개 부문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동화 모델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도 탑기어 어워즈에서 현대차 N 비전 74로 ‘올해의 인기차량’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전자 강남, 쿠폰북 ‘플레이 패스’ 제공

라인프렌즈 등 9개 브랜드 혜택

삼성 강남이 강남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기 브랜드들과 힘을 합쳤다. 삼성전자는 4일부터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북인 ‘플레이 패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쿠폰북은 ▲라인프렌즈 ▲메가박스 ▲미쏘 ▲버터샷 ▲셰이크백 ▲슈펜 ▲스파오 ▲시코르 ▲SLBS 등 총 9개 브랜드에서 사용 가능하다. 매장에 제

시하면 할인이나 선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삼성 강남 방문자에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강남 관계자는 “삼성 강남 방문 고객들이 ‘Play Pass’ 쿠폰북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브랜드들과 제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

송재승 세종대 교수, IITP 원장상 수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세종대학교는 송재승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사진)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재승 교수 연구팀은 김재호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AI 기능 지원 프레임워크 기반의 이기종 IoT 플랫폼



연동 오픈소스 및 국제 표준 개발’이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R&D) 우수과제로 선정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IITP 원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현진 기자 lhj@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별세

비공개 가족장… 뉴욕서 추모식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별세했다. 향년 100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 컨설턴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키신저 전 장관이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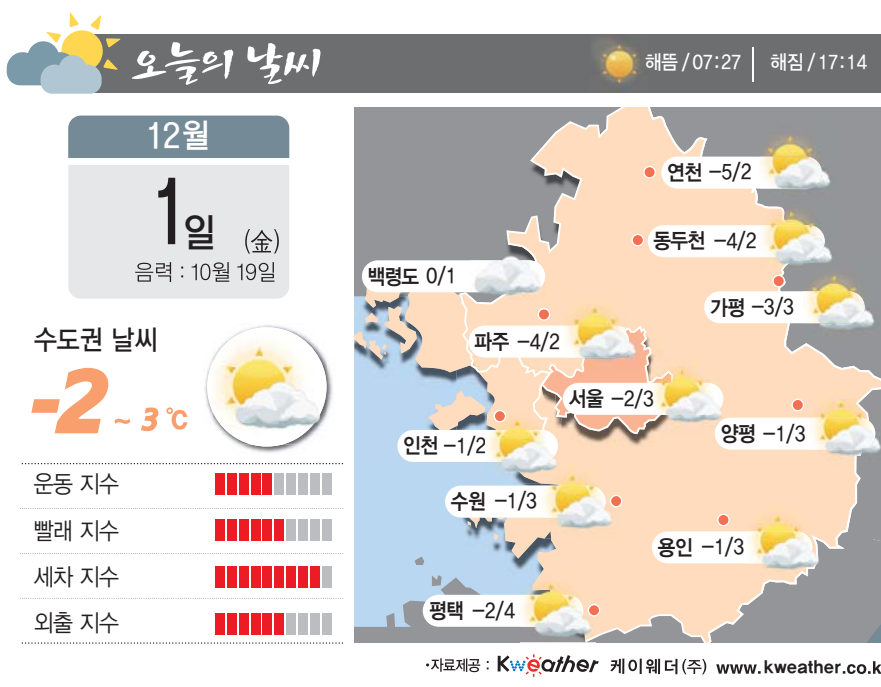


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국 코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은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추후 뉴욕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No.1 Cyber Education
N1CE HYCU



한양의 명품 교육을 온라인으로

No.1 Cyber Education
명문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전화 : 02-2290-0082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2024년 1학기 학부 신·편입생 모집
2023.12.1 ~ 2024.1.11

· 모집학과 ·

학부명	학과명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제어공학과/자동차IT융합공학과
건축도시건설공학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시스템통신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부	국방융합기술학과/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컴퓨터공학과/해킹보안학과
에너지신소재공학부	스마트배터리공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A비즈니스학과/글로벌경영학과/마케팅학과/생산물류유통학과/재무·회계·세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관광항공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사회과학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교육공학과/광고미디어학과/법·공무행정학과/보건행정학과/부동산학과/사회복지학과/아동학과
심리상담학부	군경상담학과/미술치료학과/상담심리학과/청소년상담학과
국제언어문화학부	영어학과/일본어학과/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디자인학부	건축공간디자인학과/뉴미디어디자인학과/리빙디자인학과/시각디자인학과/예술문화디자인학과

왜 ‘젼잘싸’ 인가



차 상 국 의
관망과 훈수

‘젼잘싸’란 표현이 한 이틀간 인터넷 상에서 부쩍 자주 보인다. ‘젼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은 대개 짐작할 것이다. 스포츠 경기나 인터넷 게임 등에서 결과는 패배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며 명경기를 보여줬거나 아깝게 석패한 경우에 이 말로 패자나 응원자 자신을 위로하곤 한다.

애초에는 위로의 말로 사용됐지만 요즘은 결과를 비꼬는 투에 더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다. 경기 전에 질 걸 알았고 경기내 용 자체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에서 ‘억 젼잘싸ㅋㅋㅋ’라는 문자를 SNS나 댓글 등으로 날리곤 한다.

이런 두 얼굴의 ‘젼잘싸’가 28일에는 여의도 정가발로, 29일에는 프랑스 파리발로 세간에 등장했다.

전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행사장에서 “민주당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젼지만 잘 싸웠다고 먼저 규정지는 것에 경악했다”며 현 이재명 대

표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다. 1년전 대선 상황을 놓고 벌이는 정당내 혼한 말싸움이 다. 후자는 부산의 2030년 엑스포 유치전이 실패한 뒤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변명하듯이 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본래 의미가 주로 석패, 분패한 경우에 쓰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투표결과는 밤늦게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언론매체에서는 박빙 열세를 계속 보도했다. 투표결과가 국제박람회기구 행사장 전광판에 찍히는 순간까지 현지 중계방송은 2차 결선투표행과 대역전극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그러나 119대 29대 17. 한국은 경쟁국사우디아라비아리아드에 총 165개 투표국을 놓고 무려 90표를 뒤졌다. 사실상 포기수준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 로마보다 겨우 12표 많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29개 친한파(득표국) 중에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권은 눈을 씻고봐도 드물다. 남미도 비슷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K-파워가 전세계를 헤집고 있는 요 몇년 새 볼 수 없었던 국제경쟁 대참패였다.

백년 양보해 외교력의 한계는 1위 사우

디의 오일머니살포때문이었다고 접어두더라도 정보력 부재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투표직전까지 ‘박빙 승부’를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나 민관합동유치팀의 상황파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전장에 나가면 지피지기가 중요하고 제일 먼저 판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능력이든 형국이든 불리하면 그에 맞춰 필승전략을 가져가야 비록 지더라도 ‘젼잘싸’를 꿈꿔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너무 동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1년 넘게 100여 개국 정상들을 만났고 투표 사흘전까지 파리 현지에서 득표활동을 한 윤대통령이 홀로 고군분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상황이다. 참패의 판세를 몰랐다면 분명 정부 상층부의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젼잘싸’의 뜻이 ‘젼으니 짐이나 잘 싸라’는 비아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넘쳐나는 ‘젼잘싸’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정부의 신뢰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 같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디지털 전환의 빛과 명암



기지 수첩
구 남 영
(산업부)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처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작품은 아니지만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가를 탐구하는 역작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맞본 보안관 에드 톰 벨이 등장한다. 에드 톰벨은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 이들을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에드 톰벨’ 같은 인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사회적 문제로 매번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해결책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야구시리즈 발권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다. LG트윈스 팬인 할아버지가 길게 늘어선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온라인서 표가 매진됐다는 말을 들은 것.

발권 뿐만이 아니다. 택시부터 실생활에 밀접한 은행까지 디지털 및 AI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에프아이에스(FIS)의 IT 개발업무와 관련한 인력 등을 우리은행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 안전을 결의했다. 신한은행도 그룹 통합 AI 컨택센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생성형AI를 통해 고객 질문에 답변하는 지능형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분야에 특화된 자체 버티컬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가 상당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79세 이하 취업자 수는 324만명으로, 22년 같은

달에 비해 23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물론 디지털전환의 이점도 명확하다. 기자는 최근 일본에서 디지털 전환의 장단점을 피부로 느꼈다. 일본의 출입국 심사 소요 시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전환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아, 공항에서 빠져 나오려면 평균 3시간 이상은 걸렸다.

하지만 노인들은 다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매표소도 마찬가지.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예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뤄져 길게 줄을 서거나 할 일이 드물어졌지만, 일본은 달랐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이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다.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다. 현재의 노인이,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인 것을 망각하면 안된다. /koogija_tea@

오늘의 운세 12월 1일 (음 10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48년생 늦게라도 상속을 받으니 축복이 자 복덕이다. 60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2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84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37년생 닭띠 머느리와 연쟁하지 않도록. 49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61년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73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85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38년생 자녀가 해운업이나 해산을 관련 일은 길신 하다. 50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식하지 않다. 62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74년생 연장근무로 효과를. 86년생 결정 장애처럼 우유부단해져 가는데.



39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51년생 평소 아박하다 보니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63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 75년생 형제간 누가 잘하니를 따지면 무엇하겠는가. 87년생 꿈 같은 아내가 여우 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40년생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괴심한 머느리만 있다. 52년생 묵인 기도를 해보라. 일이 해결된다. 64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76년생 밀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서라. 88년생 아직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이다.



41년생 치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53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65년생 집 짓는데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77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89년생 내가 뛰어나도 조직에서는 상사의 뜻을 따르자.



42년생 매매를 해서 빚을 털고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54년생 말의 흉수 시절 조심은 하자. 66년생 결혼이 필수 시대였으나. 78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90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43년생 처음 만난 상대에게 위함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산다. 55년생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로 골치가 아플 것. 67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입력은 우수. 79년생 맡은 일을 매듭짓는다. 91년생 인간 세상사 원칙은 있는 법.



44년생 자녀들과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56년생 아직도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다. 68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80년생 서두르는 결혼이 이혼을 부른다. 92년생 상황에 맞는 대처법은 있गे 마련.



45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리트 피곤을 가져온다. 57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과 연관된다. 69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81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등해도 고민하지 말자. 93년생 큰돈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한 단계부터.



46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58년생 임금민 귀는 당나라 귀이 니 젊은 사장님 뒤통수 애기로 씌지 말도록. 70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82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94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47년생 미워하는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59년생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71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83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95년생 폭풍우가 몰쳐오도 언젠가는 그치니 인생도 그러한 것.



김상회의四季

음양의 조화

신비한 빛의 향연인 오로라는 그간의 위치보다 남하했다는 것은 예상보다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했다는 방증이며 이것은 지구의 입장에서 그리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강한 태양폭풍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게 시켜 위성 항법과 무선 통신을 중단시키며 오존층을 파괴하기도 하여 강한 자외선이 지구에 방출되므로 건강상으로도 우려 점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가스 구름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구에 도달했다 하니 마치 아름답게 핀 장미꽃이 가시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은 비유를 생각하게 한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여서 갖출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 친절을 베풀며 잘해 주다가 어느 순간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장관이지만 지구 대기에는 방사선을 선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내 인생의 오로라 버킷리스트를 꾸꾸는 것도 전도된 환상이라라. 주역에 괘에도 라는 괘가 있다. 멀리서 보면 단풍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나무 밑동에 쌓인 단풍잎 역시 감상을 불러일으키지만, 막상 그 단풍나무 밑에 가서 보면 나무 밑동에 이런저런 벌레와 추적추적 습기 찬 떨어진 나뭇잎으로 보이던 것과는 다른 기대 이하의 풍경이라는 것이다.

이는 음陰 양陽의 조화로 사람은 물질적物質의 육신肉身과 기질적氣質의 정신精神으로 이뤄짐을, 과학의 물질과 물리를 극대화해도 기체氣體의 세계 즉 육신은 물질을 먹고 정신은 기를 먹어야 산다는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주역 괘에도의 괘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씁쓸한 현실을 묘사하는 괘이고 이런 괘가 들어올 때는 당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내해야만 한다. 우리 속담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비견해도 좋으리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2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이포 벨리 페루아 총집약... ‘1865 프렐루전’ 탄생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20

골프 한 라운드인 18홀의 기준 타수는 72타다. 65타로 타수를 줄이기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주말 골퍼들에게는 골프를 사랑하는 열정과 노력, 여기에 행운까지 더해줘야 가능한 타수다.

칠레 와인 1865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행운의 골프와인 이미지였지만 기본기인 맛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반짝 인기엔 그쳤을터. 반대로 품질이 좋고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도 이만한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는 힘들다는 면에서 보면 1865는 그 어느 골퍼보다 스스로에게 행운을 안긴 셈이다. 1865는 사실 산 페드로 와이너리가 세워진 연도를 말한다.

그간 만나온 1865가 모두의 입맛을 맞춘 입문용이라면 ‘1865 프렐루전’은 산 페드로 와이너리가 새로 선보이는 1865의 최상위 프리미엄 와인이다.



1865의 수석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카데론이 1865 프렐루전(원형사진)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양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기 위해 산 페드로는 1865가 시작된 마이포 벨리로 돌아갔다. 마이포 벨리는 칠레에서도 최고의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다.

1865의 수석 와인메이커 안드레아 카데론은 프렐루전 출시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포 벨리는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커 포도가 숙성되는 속도를 늦추고 산도를 유지해 우아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며 “프렐루전은 페루아를 최대한 표현한 와인”이라고 설명했다.

1865는 5개 대륙, 약 40개국에 수출되지만 산 페드로는 프렐루전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다. 그만큼 산 페드로에 한국 시장의 의미는 남다르다. 작년에만 한국에서 팔린 1865가 무려 102만병이다. 1865 전체 수출 물량의 60%에 달한다. 한국에 수입돼 팔리는 칠레와인 4병 중 하나가 1865라고 보면 된다.

프렐루전(PRELUSION)은 서사곡(Prelude)이란 의미다. 1865가 시작된 마이포벨

리의 페루아에 집중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듯 처음과 중간, 끝이 명료하게 보여지는 걸작이 될 와인이라는 의미에서다.

프렐루전은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 등을 섞어 보르도 스타일로 만들었다. 로사이로·알토 하우엘·피르케·엘 마리스칼 등 4개 포도밭에서 채배한 포도를 100% 손으로 수확해 만들었다.

프렐루전은 프리미엄 와인이라고 하지만 기존 1865와 변함없이 접근성이 좋다. 까다로운 보르도 와인과 달리 어렵지 않고, 바로 마셔도 맛있다. 여기에 프리미엄 와인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균형미와 우아함, 숙성 잠재력을 갖췄다. 붉은 과실의 풍미에 오크 숙성에서 나오는 시가와 감초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부드러운 탄닌과 질감 좋은 산도를 느낄 수 있고, 끝맛이 길게 남는다.

1865 프렐루전은 출발이 좋다. 2019년 첫 빈티지부터 와인 전문지 디켄터로부터 97점을 받았다. 당시 포도 성숙과 수확 시기에 기후 조건이 잘 맞춰지면서 포도 자체가 균형과 집중력이 뛰어났다. 칠레 프리미엄 와인 가운데 첫 빈티지가 고득점을 받은 경우는 프렐루전이 처음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를 읽다가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 책을 내 인생에서 좀만 더 일찍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책의 저자는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다 간 전 우익옹이다.

그는 해방 후 민청에서 청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6년 남짓 징역을 살고 나온 전 우익은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일을 하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다.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으로, 자연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겼다.

전우익옹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며 야귀다툼을 벌이는 인간들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한다.

“자리 매는 일보다 몇천만 배 더 큰 일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어울려야 할 텐데, 요즘은 일치보다는 차이를 너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가 계절별 자연의 변화에서 구해낸 인간 사에 대한 통찰은 놀랍기만 하다. 이른 봄 얻어 심은 수수 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였다. 수수는 늦겨울에야 나기 시작했고, 그는 씨라는 것도 제각기 나름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이 전부 다른 것처럼, 식물도 그와 같아 농사짓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가을엔 누렇게 빛이 바래 머지않아 떨어질 잎들을 잔뜩 달고 있는 상수리나무와 자작나무들을 보며 한탄한다. 춥고 먼 길을 가자니까 뭘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

전우익의 지음/현암사

수 있는 대로 간편한 몸가짐을 해야겠어서 잎을 다 떨궈버리는 지혜가 나무에겐 있는데, 왜 사람에게에는 없는지.

그는 올겨울도 추울 거라고 말한다. 그해 여름 그해 겨울을 살기에 언제나 지금이 가장 춥고 덥다는 것이다. 덥지 않은 여름이 없고, 춥지 않은 겨울이 없듯 역사도 수월할 때가 없었을 거라며, 그럼에도 온화한 가을을 몰아내고 찬바람을 몰고 온 겨울이 달갑지 않아 가자미 눈으로 흘겨보는 이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한응대지발춘화(寒凝大地發春華)‘ 쫄쫄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우리라는 노신의 시 구절입니다. 겨울과 봄이 남남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겨울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1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

팔레스타인 실험실

앤터니 로엔스틴 지음/유강은 옮김/소소의책

“우리가 판매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은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시험한 것으로 비상시기에 이상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수행하며 신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는 것

에서 나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데 사용된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버젓이 홍보한다.

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교한 감시·정보 장비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무기 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됐는지 까발린다.

356쪽. 2만3000원.



근대의 초상

김인환 지음/난다

근대사회의 경제 체계는 쉬지 않고 확대된다. 그 바탕에 어긋남이 내재돼 있어 사람들은 일상에서 위기와 동요를 지속적으로 겪는다. 근대사회의 어긋난 사과는 우리가 노력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모든 사람이 부도와 실직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시대

가 바로 ‘근대’이기 때문이다.

책은 ‘어긋남의 체계’, ‘일용할 기계’, ‘가치론과 문화’라는 세 편의 글과 함께 자본론에 대한 절요를 통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만 사람답게 살 수 있으므로, 인간에게 자유는 함께 자유로움이 라고 말한다.

124쪽. 1만3000원.



정상동물

김도희 지음/은행나무

우리는 마트에서 무심하게 집어 든 ‘고기’가 ‘동물의 시체’라는 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한다.

돼지의 시체는 부위나 조리 방법에 따라 제육볶음, 족발, 보쌈 등으로 다르게 불리고 이런 어휘들은 고기가만 들어지는 데 필요한 동물의 죽음을 의식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책은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생태·식량위기는 동물을 죽여도 되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희생 시켜온 것에 대한 청구서”라며 “동물을 ‘고기’, ‘실험체’, ‘전시물’로 보지 말고 지구에 함께 사는 공생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12쪽. 1만8000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하마스 “이스라엘이 인질 제안 거부”
...‘전투 재개 준비’ 지시
▲ 중국 11월 제조업 PMI 49.4·0.1P ↓
...“2개월째 경기축소” /사진 뉴시스



▲ 박진 외교장관, 엑스포 유치 실패에
“애석...정부 최선 다해” /사진 뉴시스
▲ 베트남 올해 외국인 입국 11개월간
1120만명..지난해의 3.8배

▲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향년 100세로
별세...비공개 가족장
▲ 지구서 10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계
발견



글로벌 빅파마와 맞손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간 수주 3조 돌파
L1



Life

격투게임
최강자 가린다
금 김관우 주목
L2



배달치킨 대신 골라먹는 ‘홈치킨’ 부담 싹 지우니 “군침 싹~ 도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사세 ‘버팔로링·윙봉’

배달치킨 3만원 시대, 가성비로 무장한 홈치킨이 있다. ‘사세(SASE)’다.

‘1인 1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치킨은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다. 시장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2060 성인 남녀는 월 평균 2~3회 치킨을 취식한다.

하지만, 최근 배달비를 포함해 3만원에 육박하는 치킨 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문점 수준의 웰메이트 치킨 간편식이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국내 유수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을 통해 버팔로 윙을 비롯한 각종 치킨 제품을 선보이는 사세의 버팔로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세는 1997년 9월에 설립된 국내 1위 냉동 가공식품 및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이다. 1991년 닭고기 원육 무역회사로 출발, 한 때 국내 수입 계육의 70% 이상을 공급할 정도로 국내 식품 시장에서 이름을 알렸고,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유행과 열처리 가공식품 수입 허용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연구개발해 온 사세 버팔로 윙&윙봉을 선보였다.

닭고기의 특정 부위를 떼어 판매하는 부분육 또는 치킨 가공품의 카테고리가 없던 당시에는 버팔로 윙이 무척 생소한 메뉴였지만, 전사가 협력하여 치킨 가공품의 경쟁력과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한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히트 상품이 됐다.

사세 대표 제품은 버팔로 윙과 버팔로 윙 스틱(봉)이다. 사세 버팔로 윙은 2005년 출시한 후, 약 1800만 팩 넘게 판매되었으며, 버팔로 윙스틱은 약 1400만 팩 이상 판매됐다. 버팔로 윙과 버팔로 윙스틱 판매량을 모두 합치면 약 3000만팩 이상 판매되었는데, 이 판매량은 히말라야산맥 높이의 약 7600



사세버팔로 윙봉갈비

/사세

배이며, 지구 약 한 바퀴 반 정도가 된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평균 18개 이상, 연간 1인당 평균 1개 이상 먹은 셈이다.

현재 사세버팔로 시리즈는 세프 전용 대용량 제품 ▲버팔로 윙 플러스 ▲사세버팔로 스틱 플러스와 가정용 간편식 ▲윙봉 오리지널 ▲윙 오리지널 ▲윙 허니 ▲윙봉 갈비맛 ▲윙봉 허니맛 등으로 구성됐다.

사세는 더욱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에이칠링 공법을 사용한다.

닭은 사람보다 높은 약 40도의 체온을 가진 동물로, 도계 과정을 거친 닭은 최대한 빠르게 내부의 온도, 즉, 품온을 4도 이하로 빠르게 낮추어 주는 공정이 선도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대부분의 공장은 차가운 물에 도계한 통닭을 담그는 방식 ‘워터칠링’으로 품온을 낮춰준다. ‘워터칠링’ 공정은 간편하고, 닭고기 자체에 물의 무게가 증량되는 방식으로 편의성에서도 단가적으로도 생산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은 방법이다.

그러나 물을 머금은 고기는 선도가 쉽게 떨어지고 고기의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공법은 아니다.

사세는 도계 후, 차가운 바람을 쏘여 품온을 낮추는 ‘에어칠링’이라는 공법을 사용한

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레일을 통과시키는 이 방법은 닭고기에 일체 물이 닿지 않으며, 닭고기 내부의 수분이 오히려 일부 증발하면서 고기가 쫄득해지고 맛과 선도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

사세의 최대 강점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생산, 유통을 강화한다는 점이며, 이를 기반으로 치킨 냉동 치킨가공품 분야에서 연속 국내 1위의 쾌거를 이룩하고 있다.

또한, 2021~2022년 연속으로 냉동가공계육 시장 내 닭날개(윙, 봉, 윙봉, 스틱, 날개) 부위 치킨 카테고리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36.9%로 21년 28.6%보다 8.3%p 상승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2020년부터는 B2B사업으로 쌓아올린 전문 분야 노하우를 B2C에 접목, 고객에게 직접 사세 제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감을 줄이고자,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홈치킨 제품을 선보였다. 기존 B2B를 대상으로 대용량으로 판매하던 버팔로 윙 시리즈를 다양한 소비자 가구 형태를 고려한 500g 내외 가정용 제품으로 출시, 맛과 부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고객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구성한 것이다.

사세 관계자는 “국내 냉동 치킨 가공품 시장을 선도하며,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개발 노하우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는다”며 “B2B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기업이기애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뛰어난 품질의 치킨을 합리적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선보여 홈치킨의 대명사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냉동식품 1위 기업, 버팔로 윙&윙봉 선택
생소한 메뉴서 트렌드 만든 히트상품으로

에어칠링 공법으로 닭고기 맛·선도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해 개발·유통 강화

B2B에서 B2C로... 고객 니즈 맞춘 라인업
다양한 맛, 부위 소용량 제품에 선택폭↑



소비자 가구 형태를 고려한 가정용 사세버팔로 제품시리즈.

/사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박인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선수
위원 최종후보 선정 /사진 뉴시스
▲LG 오스틴, 구단 첫 외국인 선수 골든
글러브 노린다

▲‘롯데행’ 투수 진해수 “엘리트에서 다
뛰어보게 됐네요”
▲새 감독 선임 일주일 만에 단장 찾기
나선 SSG “신중 기한다”



▲FA 양석환, 두산과 4+2년 최대 78억
원 계약
▲KIA의 약한 고리 1루수...대안으로 떠
오른 ‘이우성’ /사진 뉴시스